



중소병원 회원 역량개발 사업 주력

경기도간호사회 총회 70주년 기념책자 출간기로

경기도간호사회(회장 김인자)는 제71회 정기총회(제28회 대의원총회)를 3월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올해 중·소·요양병원 회원들의 역량강화 사업에 힘쓰기로 했다. 간호관리자 연수 및 임원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회원배가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역사관 사업도 장립 70주년 기념책자를 출간할 예정이다.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간다. 간호정책 아카데미, 시·군간호사회 간호정책 간담회를 연다.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의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 시·군간호사회 특강 지원, 중소병원 역

량개발 교육, 프리젠테이션 및 신입간호사 교육, 인문학 강의 등을 진행한다. 간호학술·간호학술·석사과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경기센터를 통해 이직방지와 유류간호사 재취업 교육 등을 실시한다. 소식지와 홈페이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홍보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예산은 29억518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경기도간호사회회비는 동결했다.

총회 개최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김영진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정춘순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대독)가 축사를 했다. 총회에 앞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한국간호의 정책 과제' 주제로 특강을 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공감, 건강한 간호문화를 이룬다

병원간호사회 총회 제9차 장기사업계획 수립

병원간호사회(회장 박영우)는 제44회 정기총회(제33회 대의원총회)를 '공감, 건강한 간호문화를 이룬다' 주제로 3월 8~9일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병원간호사회는 올해 간호지원시스템 실태조사, 병원간호사 적정임금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간호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환자안전간호' 제작 준비작업을 진행한다.

간호부서장, 간호관리자, 간호사, 프리젠테이션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임상간호연구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며, '혼합간호연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의료기관인증제 평가 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행복한 간호현장 만들기 위한 복지세미나, 행복찾기 워크숍, 리더십 캠프를 개최한다. 긍정적인 간호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간호문

화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전문직 간호사 이미지 확립을 위해 간호문화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간호사, 플러스 스토리' 책자 발간을 준비한다.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포상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제9차 장기사업계획(2019~2021년)을 심의 확정했으며, 장기사업계획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이미지 확립 및 대외 홍보 등 6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올해 예산은 30억430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병원간호사회회비는 동결했다.

총회 개최식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유재중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박경환 부산병원회장이 축사를 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공감, 건강한 간호문화를 이룬다' 주제로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강연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감염병 위기 총괄 '긴급상황실' 개소

국내외 감염병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이 공식 개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긴급상황실(EOC) 완공기념식을 3월 8일 개최했다.

긴급상황실은 국내외 감염병 위기에 대한 관리·감독, 위기상황 조종대응,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소통 등 감염병 위기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긴급상황실은 2015년 중증호흡기증후군 유행 후 그해 12월부터 임시 공간에서 운영됐으며,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기반시설을 갖춘 별도 건물을 신축해 이날 공식 개소했다.

긴급상황실은 메인룸, 상황판단실, 상황관리실, 교육홍보실, 중앙조정실로 구성돼 있으며, 영상회의시스템과 상황정보표출시스템

을 갖추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식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국민적 과제이므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면서 "방역의 완성성은 국민의 참여에 이뤄지는 만큼 안전한 삶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메르스 국내 유입사례 대응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을 통해 메르스 의심환자 정의 기준 등을 개선하고, 신속히 확인해 감염의 전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 대응 표준운영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혜진 기자 hjoo@

나를 변화시키는 5가지 지혜

“환자 중심으로 혁신하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하라.” “박수와 함성으로 서로를 칭찬하라.” 병원간호사회가 개최한 간호문화세미나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다른 생각' 주제로 강연한 신경호 이트랜드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장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조언했다.

신경호 대표는 △나는 창의적이다 △이상성을 추구하라 △주저 없이 슬쩍하라 △사람 중심으로 혁신하라 △더 잘 실패하라 등 다른 생각을 위한 5가지 지혜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나는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음을 믿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이상성을 추구하라. "자신의 좌우명을 토대로 이상적인 미

를 꿈꾸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주저 없이 슬쩍하라. 슬쩍에 대해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보고 다르게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디어를 낼 때는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계속 공유해야 변화를 함께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디어를 키우는 방법으로 "르 박수와 함성으로 서로를 칭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넷째, 사람 중심으로 혁신하라.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호사가 다루는 대상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현장에서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환자중

포상

경기도간호사회 포상

경기도간호사회는 3월 6일 열린 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경기도지사상= 김영일(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오지은(분당제생병원 간호팀장) 장용숙(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전애자(한림대성심병원) 정향례(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대한간호협회장상= 정재선(한양대구리병원) ◇경기도간호사회장상= 박설화(수원웰스기념병원) 서예숙(분당제생병원) 송수현(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이영미(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이정자(원광대 의과대학 산본병원) 이창희(한림대성심병원) 임정애(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황연우(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병원간호사회 포상

병원간호사회는 3월 8일 열린 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간호지도자상= 송말순(전 병원간호사회 부회장) 최심영(전 병원간호사회 이사) 나인재(전 대구병원간호사회장) 심재연(전 전남병원간호사회장) 양진기(전 부산병원간호사회장) 문정선(전 광주병원간호사회장) 김영은(전 충남병원간호사회장) 정옥분(전 경남병원간호사회장) 장창섭(전 병원조형모세포이식간호사회장) 이윤진(전 병원상처장무실금간호사회장) 한상순(전 병원한방간호사회장) ◇병원간호인상= 박봉희(김원목기념병병원 간호부장) 임정자(대전선병원 간호국장) ◇우수 병원간호사회상= 대구병원간호사회, 경기병원간호사회, 전남병원간호사회, 병원중환자간호사회, 병원상처장무실금간호사회 ◇1004Day UCC 공모전 수상자(천사상) = 최미선(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2019년 면허신고 대상

- ▶ 2015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2012 ~ 2015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2016년 면허 취득자
- ▶ 2016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신고기간

2019. 1. 1. ~ 2019. 12. 31.

면허신고 방법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며, 2018년까지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면허신고센터 : ☎1588-6282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 lic.kna.or.kr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바로가기 클릭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주력

산업간호사회 총회 산업간호사 고용환경 개선 추진

산업간호사회(회장 정혜선)는 제2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산업간호사회는 29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산업안전보건에 중요한 해를 맞이한 만큼 그동안 제시했던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활동규제완화명칭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5가지 지혜를 통해 변화를 믿는 간호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양한 회원증가 활동을 펼치고, 지회조직 활성화 및 조직체계 정비에 주력하기로 했다.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고용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양질의 취업을 위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인력 교육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를 개편해 운영을 활성화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5억300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산업간호사회회비는 동결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이 '안전보건 전략' 주제로 특강을 했다. 우수지회 등에 대한 시상식과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